

2023 지방직 9급: 2023. 6. 10.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6월 1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커넥츠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제 영역별 분석표

지문 분석형 문항 (15)	독해 (11)	추론형 (4): 생략된 정보 추론하기,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내용 일치 (2) 말하기 (2) 문장 배열 (1) 중심 내용 (1) 문단 고쳐쓰기 (1)
	현대 문학 (2)	현대 시 (1) 현대 소설 (1)
	고전 문학 (2)	시조 (1) 고전 소설 (1)
지식형 문항 (5)	국어 문법· 국어 규범 (2)	문장 성분 (1) 한글 맞춤법 (1)
	어휘·한자 (3)	한자 (1) 한자 어휘 (2)

* 출제 문항별 분석표

1	독해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11	독해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2	독해	내용에 맞게 문장 배열하기	12	어휘·한자	한자 어휘
3	국어 문법	문장 성분의 종류	13	국어 규범	발음이 비슷한 단어의 쓰임
4	어휘·한자	한자 어휘	14	어휘·한자	한자
5	고전 문학	고전 시가: 시조	15	독해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6	독해	중심 내용 파악하기	16	고전 문학	고전 소설
7	독해	문맥에 맞는 내용 유추 및 고쳐쓰기	17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8	독해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18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9	현대 문학	현대 시	19	독해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10	현대 문학	현대 소설: 시점	20	독해	제시문의 정보를 이용하여 추론하기

★ 선재국어 적중 내용은 동영상 해설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은 지난 4월 치러진 국가직 9급 시험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시험이었다. 첫째, 예상했던 대로 독해가 총 11문항이 출제되어 가장 높은 문항 비율을 차지했지만,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 전반적인 난도는 평이했다. 화법, 내용 일치, 내용 추론, 배열 관계 등 수험생들에게 매우 익숙한 문제가 대다수 출제되었으며, 고난도의 문제나 신유형 문제 등은 출제되지 않았다.

둘째, 문법과 규범이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2문항이 출제되었다. 문장 성분과 <한글 맞춤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학습한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문학은 현대 시, 현대 소설, 고전 시가(시조), 고전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고루 출제가 되었다. 수사법이나 소설의 시점 등 작품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선택지가 다수 출제되었는데, 4지문 모두 선재국어 교재에 실린 작품이었기에 기본 이론을 학습하였다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넷째,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어휘와 한자 영역에서 눈에 띈다. 한자 문제는 <한글 맞춤법> 제57항에서 많이 다룬 단어가 출제되었다. 그러나 맞춤법이 아닌 한자로 나왔기에 한자를 꼼꼼하게 눈여겨보지 않은 학생들은 틀렸을 확률이 높다. 어휘 문제는 문맥에 맞는 한자 어휘를 찾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 시험 등에서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기도 하다. 단순 암기형을 지양하고 민간 시험과의 호환성을 제고하겠다는 인혁처의 발표를 고려할 때, 앞으로 독해력과 함께 어휘력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2023 지방직 시험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지문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 시험이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처럼 꾸준히 선재국어의 독해 훈련 프로그램인 《독해야 산다》에 참여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이와 함께 명심해야 할 것은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는 일관되게 '기본적인 국어 지식'에 대한 문항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전처럼 지엽적이고 난도 있는 내용까지 모두 익히는 것은 이제 올바른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직 시험과 지방직 시험 모두, 기본적인 문법과 규범, 문학 지문이 출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기본 개념 위주로 국어 지식을 익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압축 기본서를 빠르게 학습하여 개념을 익힌 뒤, 《매일 국어》를 통해 문제 풀이에 대한 감을 유지할 것을 추천한다.

늘 강조했듯이 《독해야 산다: 점수를 바꾸는 15분》에 꾸준히 참여했던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다시 한번 독해 훈련의 중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우리의 노력이 합격으로 보답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합격을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1. ㉠~㉣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 주무관: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최 주무관: ㉠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김 주무관: ㉡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최 주무관: 설명회에 참여할 청중 분석이 먼저 되어야겠지요.
 김 주무관: 청중이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최 주무관: ㉢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김 주무관: ㉣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 ① ㉠: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여 직접 질문하고 있다.
- ③ ㉢: 자신의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 의문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정답: ①

해설: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I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최 주무관은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답했으므로 ㉠은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 오답 풀이: ② ㉡은 평서문을 사용해 ‘(설명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AI에 대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를 간접적으로 물은 것이다. 이러한 간접 발화는 직접 발화에 비해 듣는 이의 부담감을 덜어 주는 정중한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은 정중한 표현(간접 발화)을 사용하여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물은 것이다.
- ③ ㉢은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김 주무관이 제기한 ‘청중의 관심 분야 파악’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물은 것이다.
- ④ ㉣은 최 주무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상대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 아니다.

2. ㉠~㉣을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독서는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그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은 상상력을 관장하는데, 책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어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 A 교수는 책을 읽을 때와 읽지 않을 때의 뇌 변화를 연구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두엽이 훈련되어 전반적인 뇌 발달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결과는 교육 현장에서 실증된 바 있다.

독서를 많이 한 아이는 학교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뿐 아니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정답: ①

해설: 독서가 아이들의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주지를 사례를 통해 뒷받침한 글이다.

③ 제고하다(提高: 끝 제, 높을 고): 수준이나 정도 따위를 끌어올린다.

5.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 흘러간들 청산(靑山)이야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저 우러 네어 가논고.

- 황진이

(나) 청산(靑山)는 엇데흐야 만고(萬古)애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데흐야 주야(晝夜)애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말아 만고상청(萬古常靑)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

- ① (가)는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구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해설: (가) 황진이의 <청산은 내 뜻이오 ~>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조이다. 이황의 <도산 십이곡(陶山十二曲)>은 자연을 노래한 언지(言志)와 학문에의 정진을 노래한 언학(言學)으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나)는 이 중 언학의 한 수이다.

(나)에 청각적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나)에서는 불변하는 ‘청산’과 ‘유수’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학문 수양에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변하지 않는 ‘청산’과 변하는 ‘녹수’를 대조하고 있다. 임의 사랑은 흘러가는 녹수와 같지만 임에 대한 자신의 사랑은 불변하는 청산과 같다고 말하면서,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을 제시하고 있다.

③ (가)는 “청산은 내 뜻이오 녹수논 님의 정이”에서, (나)는 “청산논 엇데흐야 ~ / ~ 주야애 굿디 아니논고”에서 대구를 활용하고 있다.

④ (가)는 ‘청산이야 변홀손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나) 역시 “유수는 ~ 굿디 아니논고”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유수는 그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6.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환 가치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가치이며,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 전자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후자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점에서 주관적이다.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섞여 있는데,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백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등의 댓글들을 보고서 애초에 관심도 없던 이 공연의 티켓을 샀다. 그에게 그 공연의 사용 가치는 처음에는 없었으나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조금도 만족하지 못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가 결정될 때, 그 상품은 ‘나’에게 쓸모없는 골칫덩이가 될 수 있다.

- ① 사용 가치보다 교환 가치가 큰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②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 ③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
- ④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구체적 사례를 통해 주지를 제시하는 글이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내용은 사례 다음에 제시된 내용, 즉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 사용 가치의 의미를 되새겨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② 상품 구매 시 사용 가치를 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지, 교환 가치와 사용 가치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③ 글쓴이는 상품 구매 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으므로, 제시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7. ㉠~㉣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하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린 천주학은 ‘학(學)’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 종교적인 관점에 서보다 학문적인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의 유학자 중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학문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어서 서학이 ㉢ 유일한 대안은 아니었다.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며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어떤 부분은 ㉣ 지양했다.

- ① ㉠: ‘학문적인 관점에서보다 종교적인 관점에서’로 수정한다.
- ② ㉡: ‘주장하였는데’로 수정한다.
- ③ ㉢: ‘유일한 대안이었다’로 수정한다.
- ④ ㉣: ‘지양했다’로 수정한다.

정답: ④

해설: 어휘나 문장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문제로, 글의 비판적 읽기 영역의 문제이다.

마지막 문장의 ‘서학의 어떤 부분은 수용했지만, 반대로 ~’로 보아, ‘수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 ‘지양했다’는 ‘지양했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지양하다(止揚하다): 더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하지 아니하다.

오답 풀이: ① 천주학에서 ‘학(學)’은 ‘학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② ㉡ 뒤의 ‘서학은 신봉의 대상이 아니라’로 보아, 이 내용 앞에는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가 나오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 신봉(信奉): 사상이나 학설, 교리 따위를 옳다고 믿고 받들.

③ ㉢ 앞의,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계에는 양명학이나 고증학 등도 있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이 내용 뒤에는 ‘서학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짧았던 밤, 겨울 안개, 촛불, 흰 종이, 눈물, 열망'들은 화자가 사랑을 할 때 접했던 모든 것들이다. 이들을 호명하고 이들에게 이별을 고하면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영탄적 어조란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어조로, 주로 감탄사나 감탄형, 부르는 말 등을 사용하여 벽찬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이 시에서 화자는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내면의 공허함과 절망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방식을 사용하여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10.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똘한 나머지 빌려줬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가*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이름이 뭐죠?”

“월산부인입니다.”

“지금 내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디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였다.

“월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 윤희길,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해가(奚暇): 어느 겨를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되어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주인공으로서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갈등 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주관을 배제하고 외부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윤희길의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1970년대에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흐름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현실의 부조리를 형상화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취하는데, 서술자는 작중 인물인 '나'이다.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였다" 등에서 '나'는 그(권 씨)의 행동을 진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시점도 다르지만, 이 글에서는 유년 시절의 회상이나 갈등 원인의 해명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외부 관찰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작가(3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13.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이 일은 정말 힘에 부치는 일이다.
- ② 그와 나는 전부터 알음이 있던 사이였다.
- ③ 대문 앞에 서 있는데 대문이 저절로 닫혔다.
- ④ 경기장에는 걸잡아서 천 명이 넘게 온 듯하다.

정답: ④

해설: 걸잡아서(×) → 걸잡아서(○): ‘걸으로 보고 대강 짐작하여 헤아리다’의 의미로는 ‘걸잡다’를 쓰는 것이 옳바르다. ‘걸잡다’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흘러가는 형세 따위를 붙들어 잡다 / 마음을 진정하거나 억제하다’의 의미로, ‘걸잡을 수 없는 사태’처럼 쓰인다.

오답 풀이: ① 부치는(○):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로는 ‘부치다’를 쓴다.

② 알음(○):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의 의미로는 ‘알음’을 쓴다.

* 알음: 사람끼리 서로 아는 일 / 지식이나 지혜가 있음. / 어떤 사정이나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는 것

③ 닫혔다(○): ‘열린 문짝, 뚜껑, 셔랍 따위가 도로 제자리로 가 막히다’의 의미로는 ‘닫히다’를 쓴다.

14. ㉠~㉣의 한자 표기로 옳바른 것은?

- 복지부 ㉠ 장관은 의료 시설이 대도시에 편중된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
- 박 주무관은 사유지의 국유지 편입으로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를 ㉡ 보상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김 주무관은 이 팀장에게 부서 운영비와 관련된 ㉣ 결재를 올렸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長官 | 補償 | 決裁 | ② 將官 | 報償 | 決裁 |
| ③ 長官 | 報償 | 決濟 | ④ 將官 | 補償 | 決濟 |

정답: ①

해설: ㉠ 長官(길 장, 벼슬 관): 국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행정 각부의 우두머리

㉡ 補償(기울 보, 갚을 상):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代償)

㉢ 決裁(결정할 결, 마를 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오답 풀이: ㉡ 將官(장수 장, 벼슬 관): 군사를 거느리는 우두머리 [예] 용맹스러운 장관 앞에 나약한 군사는 있을 수 없다.

㉢ 報償(갚을 보, 갚을 상):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예] 빌린 돈의 보상이 어렵게 되었다. /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예] 그는 사건을 묵인하는 보상으로 거액을 받았다.

㉣ 決濟(결정할 결, 건널 제): 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예] 결제 자금

15.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 ‘복수(複數)’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는 종(種)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單數)’이기도 하다.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다원적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도 시도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서 살

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다.

- ① 우리는 고립된 상태에서 '단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 ② 우리는 다원성을 지닌 존재로서 포용적으로 공존해야 한다.
- ③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는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을 침해한다.
- ④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모든 인간은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므로 보편적 복수성을 지닌다. 동시에 고유한 인격체로서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기도 하다. 즉 유일무이성과 보편적 복수성은 모두 인간이 지닌 특성으로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유일무이성을 보존한다고 해서 개인의 보편적 복수성이 침해된다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우리는 사회 속에서 복수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립된 채 살아가는 존재일 수 없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② 우리는 보편적 복수성과 특수한 단수성을 겸비한 다원적 존재로, 이러한 존재로 구성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
 - ④ 우리는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이며, 이러한 유일무이성을 제거하는 것은 사회의 다원성을 파괴하는 일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다.

16.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매우 치라 소리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리쳐 딱 붙이니, 춘향이 정신이 아득하여, “애고 이것이 웬일인가” 일자(一字)로 운을 달아 우는 말이, “일편단심 춘향이 일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하겠더니 일신난처 이 몸인들 일각인들 변하리까? 일월 같은 맑은 절개 이리 힘들게 말으시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부치니, “애고.” 이자(二字)로 우는구나. “이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와 무엇이 다르리까? 이 몸이 죽더라도 이도령은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까? 이왕 이리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여 주오.”

“매우 치라.” “꽤 때리오.” 또 하나 딱 부치니, “애고.” 삼자(三字)로 우는구나. “삼청동 도련님과 삼생연분 맺었는데 삼강을 버리라 하소? 삼척동자 아는 일을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겨져도 삼종지도 중한 법을 삼생에 버리리까? 삼월삼일 제비같이 훨훨 날아 삼십삼천 올라가서 삼태성께 하소연할까? 애고애고 서러운지고.”

- 작가 미상, <춘향전>

- ① 동일한 글자를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숫자를 활용하여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 ④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하여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해설: 작가 미상의 <춘향전(春香傳)>은 판소리로 불리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신분을 초월한 사랑과 하층민의 신분 상승의 욕구 등을 주제로 한다.

춘향은 매를 맞으면서도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와 이 도령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있으므로, 춘향의 내적 갈등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인 춘향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지는 않다.

- 오답 풀이: ① ‘일자, 일정지심, 일부종사, 일신난처’ 등과 ‘의자, 의부불경, 이내 마음, 이군불사’ 등에서 동일한 글자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일, 이, 삼’ 등의 숫자를 활용하여 매를 맞으면서도 절개를 지키는 춘향이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춘향은 ‘일부종사(一夫從事, 한 남편만을 섬김.), 이부불경(二夫不敬, 두 남편을 공경할 수 없음.), 이군불사(二君不事, 두 임금을 섬기지 않음.), 삼종지도’ 등의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해 절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 삼종지도(三從之道): 예전에, 여자가 따라야 할 세 가지 도리를 이르던 말.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하였다.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소설의 유통 방식은 ‘구연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구연에 의한 유통은 구연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 주는 방식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들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남이 읽어 주는 것을 선호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 소설 구연을 통해 돈을 벌던 전문직 직업인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 범위를 넓히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문헌에 의한 유통은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로 나눌 수 있다.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구매는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책을 사는 것인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소설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 상업적 대여는 세책가에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설을 빌려 보는 것이다.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빌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소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

- ①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연하였다.
- ②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책을 빌려 보는 방식이다.
- ③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연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적었다.
- ④ 조선 후기에 세책가가 성행한 원인은 소설을 구매하는 비용보다 세책가에서 빌리는 비용이 적다는 데 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2문단에 따르면,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서 보는 것으로,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차람할 때, 대가를 지불했는지의 여부는 제시문만으로 알 수 없다.

* 차람(借覽): 남의 서화(書畵)를 빌려서 봄.

-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구연자가 ~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구연자는 ‘전기수’로 불렸으며’에서 알 수 있다.
- ③ 1문단의 ‘이 방식(구연에 의한 유통)은 문헌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에서 알 수 있다.
- ④ 2문단의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 조선 후기 사회에서 세책가가 성행하게 되었다”에서 알 수 있다.

18.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삼국사기》는 본기 28권, 지 9권, 표 3권, 열전 10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 열전은 전체 분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며, 수록된 인물은 86명으로, 신라인이 가장 많고, 백제인이 가장 적다.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명장, 명신, 학자 등을 수록했고, 다음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

반신(叛臣)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어 반면교사로 삼는 데 있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 흥미롭다. 가령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이지만, 당나라에 당당히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으며,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 ①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는 점은 이 책이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②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는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 ③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수록되지 않았다.
- ④ 《삼국사기》의 체제 중에서 열전이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한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2문단에 따르면, 《삼국사기》에 반신을 수록한 이유는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연개소문은 반신의 모습과 민족적 영웅의 모습이 모두 수록되었다. 이는 반신이면서 고구려인인 연개소문의 긍정적 모습도 수록한 것이므로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론에 기반하면서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라는 기존 평가와는 다른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 반신(叛臣): 임금을 반역하거나 모반을 꾀한 신하

* 반면교사(反面教師):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

오답 풀이: ① 《삼국사기》 열전에는 신라인뿐만 아니라 고구려인과 백제인도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2문단에 따르면, 《삼국사기》는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과 백제인이 수록된 것만으로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연개소문의 사례는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론에 기반해 있다는 기존의 평가와 달리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텍스트임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된다. 즉 《삼국사기》에 수록된 연개소문의 사례는 《삼국사기》에 관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준 것일 뿐, 이를 통해 《삼국사기》가 신라 정통론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단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는 없다.

- ③ 1문단의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기릴 만한 사람을 실었다’에 따르면, 《삼국사기》 열전에는 관직이 없더라도 기릴 만한 점이 있으면 수록될 수 있었다.
- ④ 1문단에 따르면, 《삼국사기》는 본기, 지, 표, 열전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많은 권수를 차지하는 것은 열전(10권)이 아니라 본기(28권)이다.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프랑스에서 의무 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아, 학습 부진아를 가려내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 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1905년 최고의 IQ 검사가 이루어졌다. 이 검사를 통해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판단했다. 물론 IQ가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읽기나 계산 등 사고 기능과 관련된 과목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IQ 검사가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학습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을 측정한다는 점이다.

- ① 최초의 IQ 검사는 학습 능력이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②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
- ③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 ④ IQ가 높은 아이가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1문단에 따르면, 1950년 최초의 IQ 검사는 정규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아, 학습부진아를 가려내기 위해 시행되었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에 따르면, 최초의 IQ 검사가 시행된 이후에야 비로소 인간의 지능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다. 따라서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③ 2문단에 따르면, IQ 검사는 인간의 지능 중 기초 학습에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등만을 측정한다. 따라서 IQ가 높더라도 전체 지능은 높지 않을 수 있다.

④ IQ 검사는 언어 이해력, 어휘력 등을 측정한다. 언어 이해력, 어휘력은 읽기 능력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IQ가 높은 아이는 읽기 능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2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 데 학습해야 할 글자가 적지만,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여서 한문을 읽는 데 익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자가 갖는 장점이 있다.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한글로 ‘사고’라고만 쓰면 ‘뜻밖에 발생한 사건’인지 ‘생각하고 궁리함’인지 구별할 수 없다. 한자로 전자는 ‘事故’, 후자는 ‘思考’로 표기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 혼란을 야기한다. 가령 ‘愛人’은 문맥에 따라 ‘愛’가 ‘人’을 수식하는 관형어일 때도, ‘人’을 목적으로 삼는 서술어일 때도 있는 것이다.

- ① 한문은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
- ② ‘淨水’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일 때 ‘淨’은 ‘水’를 수식한다.
- ③ ‘愛人’에서 ‘愛’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愛’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 ④ ‘의사’만으로는 ‘병을 고치는 사람’인지 ‘의로운 지사’인지 구별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제시문은 동일한 한자가 문맥에 따라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내용만 나와 있지, 한문이 한국어 문장보다 문장 성분이 복잡하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즉 한문과 한국어 문장의 문장 성분을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①은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② ‘淨水’는 ‘깨끗할 정, 물 수’이므로 ‘淨水’가 문맥상 ‘깨끗하게 한 물’이라면, ‘淨’은 ‘水’를 수식한다.

③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동음이의어란 ‘형태와 음이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 그리고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즉 ‘동음이의어가 아니지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愛人’에서 ‘愛’의 문장 성분이 바뀌더라도 ‘愛’는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④ 한글은 동음이의어가 많아 문맥이 없이 단어만 주어지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의사’는 동음

이의어이므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이 ‘병을 고치는 사람[醫師]’인지, ‘의로운 지사[義士]’인지 구별할 수 없다.